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2010. 4
통권 204호



2010학년도

법왕사 불교대학 · 경전반 신입생 모집

불교대학

1. 교육안내

교육과정 | 1학년 2학기제

교육내용

1학기 - 불교입문, 불교사의 이해

2학기 - 예불문과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 특전 | 조계종 종단에서 실시 하는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 부여(졸업생에 한함),
매학기 성적우수 및 신행봉사 관련
포상

※ 졸업필수조건 | 출석 80% 이상(매 학기)

2. 강의시간

3기 신입생 | 주간: 금요일 오후 2시

야간: 금요일 오후 7시

2기 편입생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 입시요강

응시자격 | 조계종 사찰에서 실시하는 기본
교육 이수자 및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 1부
기본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조계종 신도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대학등록금 | 입학금 3만원(교재비 포함)

경전반

경전반은 6개월간의 공부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불법의 진수와 심오한 경전의 세계를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1기 수료생은 물론 법우님 모두 경전반에 등록하시어 쉽게 공부하는 불자로서의 자세를 다져나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 | 법화경

강의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응시자격 | 조계종사찰 신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조계종 신도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접수기간 | 수시모집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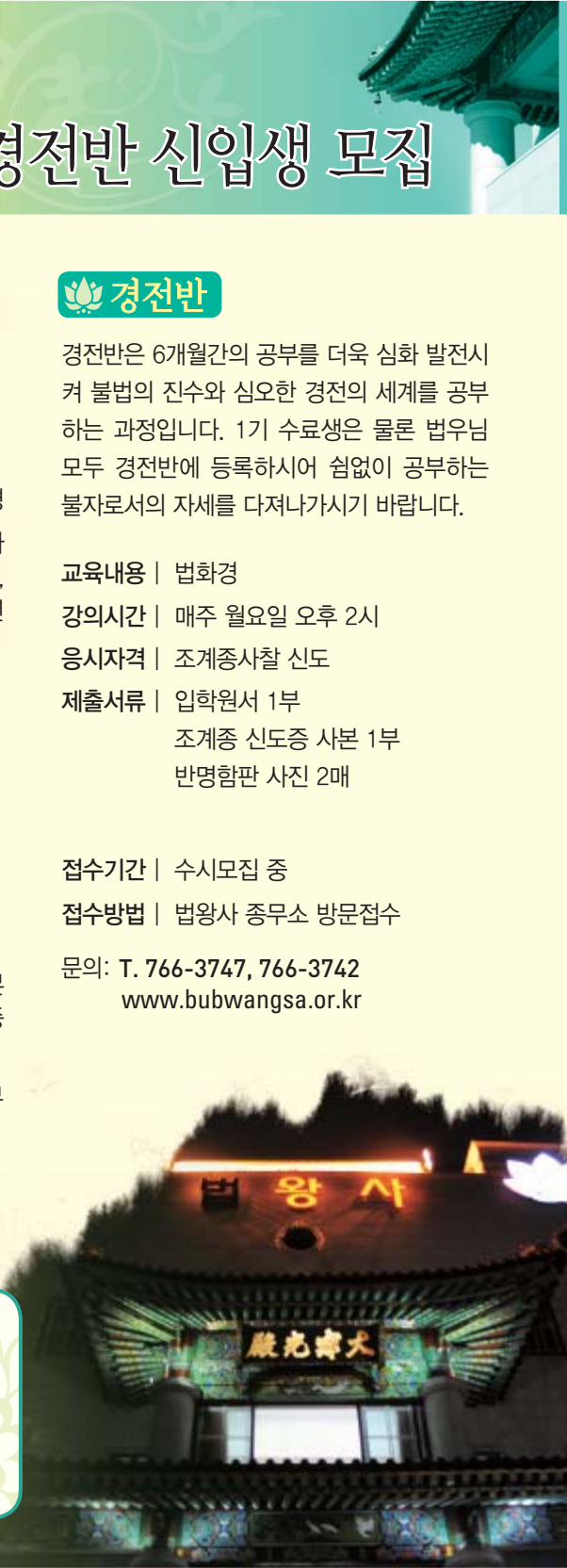
접수방법 | 법왕사 종무소 방문접수

문의: T. 766-3747, 766-3742

www.bubwangsa.or.kr

할인대상(대학·경전반 동일)

- 가족할인
- 국가유공자
- 장애인(3급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고령자(65세이상·1946년 이전 출생자)
- 재입학자(포교원 인가 불교대학 졸업자)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www.bubwangsa.or.kr

2010. 4
통권 204호



Contents

04 깨침의 향기

조계종 대종사 정무 큰스님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

12 마음의 여유

자 목련 - 김용락

14 생활속의 기도법

광명진언을 외우며

18 웰빙푸드

죽숙전
죽순 장아찌

20 만화 불교이야기

승랑 · 원촉 · 혜초 · 도의 2

22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주지스님께 올리는 호소문

25 법왕사 소식

30 법왕사 게시판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더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통권 204호 불기 2554(2010)년 4월 5일 발행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 1길 2-9번지

총무소 T.053) 766-3747 · 9088 F.053) 767-6095 기획 회주 · 정무스님 발행인 실상스님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편집위원 영일, 모도, 정명, 권기철 취재기자 박학순 디자인 정미림 기획·제작 도서출판 풍경소리 053) 424-0144

조계종 대종사 정무 큰스님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수행하라.’

전업주부들의 경우 ‘빈 등지 증후군’이라 하여 자식을 떠난 빈자리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보살(여성 불자)도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가벼운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부부가 나란히 불교대학에 입학하여 함께 불교 공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남편과 함께 스포츠댄스, 등산 등 취미 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가끔 주위 친구들이 암에 걸렸다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접하면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스님, 근데 불안한 건 여전히요.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여전히 돈을 더 모아야 할 것 같고, 조금만 아프면 큰 병이 걸린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라는 그 보살의 말을 들으면서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불안증, 공포심 등이 모두 습관, 생각하는 방향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평소 남보다 잘 살아야겠다, 건강해야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과 비교해서 뒤처진 느낌이 들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어디 그 보살뿐이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보살은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가치관의 소유자입니다. 중년의 남녀 100사람에게 “현재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대답해 달라.”고 물었을 때 아마도 100이면 100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과 경제력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Don't Compare, But Do Spiritual Practice.

It is said that there are many full-time housewives who are suffering from depression caused by so-called 'empty nest syndrome', a general feeling of loneliness after their children left home. A woman Buddhist whom I know is said to have suffered from a slight depression even though she seemed never to be so. Fortunately she got over the depression by studying at a Buddhist college with her husband, doing volunteer work, exercising sports dance, and hiking with her husband. But sometimes when she heard that some of her friends contracted cancer or got into financial difficulties because of the failure of their business, she was said to be depressed.

When I heard her saying, "Reverend, I still feel ill at ease. I don't think that I am greedy, but I feel that I still have to earn more money. And if I am a little sick, I feel nervous because it may be a serious disease," I once again realized how terrible the habit is. Depression, insomnia, nerves, and fears are all caused by thinking habits of the mind. You have constantly thought that you have to lead a wealthier life than others or you have to keep in shape. Owing to these thinking habits, you can become easily nervous or depressed when you feel that you are behind others. Well, is it only the woman Buddhist who feels like that? In this capitalist society, that woman is the person who has extremely common and normal values. When 100 middle-aged men and women were asked, "To be frank, what is the most necessary thing you want now?" Probably all of them will answer that it is health and economic power. It is quite natural that they should put the greatest emphasis on health. It is because if you lose health, you will lose everything. But the right values should be established; you have to keep health not for the sake of health itself, but for the spiritual practice and volunteer works.

As long as we live in the capitalist society, we cannot ignore the economic power.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daily life is nothing but an economic life. The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으니, 건강을 손꼽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해야 수행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만큼 경제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 나가는 게 경제생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건강과 경제에 너무도 집착하는 데 있습니다. 수단이 목적이 된 양상입니다. 건강도 경제도 욕망으로 얼룩진 상태에서 집착하면 행복은 저만큼 달아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자라면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삶이 욕구 충족의 삶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삶은 마음공부를 통해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년에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분들에게 마음공부의 원리를 일러드리겠습니다.

괴로움이 크면 깨달음도 크다.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은 세속적으로 하찮은 일에서 벗어나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방팔방 늘어놓은 인연에 꼬달려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면 마음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마음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전남편에게 감사한다.”는 보살도 있습니다. 50대에 이혼한 전업주부가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공부 가 된 것이지요. 자신의 인생에서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오히려 좋은 공부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번뇌 즉 깨달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괴로움이 크면 깨달음도 큼니다. 어쩌면 역경계가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너무나 순탄하게, 천상의 삶처럼 풍족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살펴보면 마음공부를 하는 이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가끔은 역경계가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역경계를 당했을 때 공부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더 깊고 아득한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원망하고 욕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탐진치 삼도심을 제어하지 못해 방황하고 괴로워하며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남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전법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법은 우리 사회의 가장 훌륭한 최고의 안전망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 않습니까? 나쁜 일을 당했을 때 평소 마음공부를 해왔던 불자라면 더욱 열심히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을 냅니다. 물론 좋은 일이 왔을 때도 기뻐서 날뛰지 않지요.

주위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주고, 마음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는 더욱 큰 이익이 됩니다. 위로라는 것도 한순간이요, 스스로 마음을 깨쳐 역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근본적인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problem is that you put too much attachment to health and economy. It appears that means take the place of the ends. If you are attached to health and wealth with your desire, happiness runs away from you. But if we are really Buddhists, we should be a little different, shouldn't we? If you have spent your life satisfying your desires, now shouldn't you live a life of truth by pursuing the spirituality? For the people who decided to make a fresh start at the middle age, I will explain some basics of pursuing spirituality.

If suffering is great, enlightenment is great too. Those who seek after Truth should lead a simple life free of the worldly trifle things. If you are involved in various relations, you cannot pursue the spirituality properly. I saw a woman Buddhist who said, "As I could study spirituality after divorce, I am grateful to my former husband." It is not easy for the full-time housewife, who divorced herself from her husband in the fifties, to say so. I can say that she studied so much so far.

When you suffered difficulties in your life, if you could turn them into a good chance to pursue spirituality, nothing is better than this. As there is a saying, "mental afflictions are just enlightenment." if suffering is great, enlightenment is great too. Maybe adverse environment can have a more beneficial effect on those who pursue Truth. If you look into those people who have led a smooth comfortable life like that in a heaven from childhood to adulthood, very few people are found to study in the field of spirituality. So I sometimes think that adverse environment is better.

But when people are confronted with adverse environment, they tend to sink into a far deeper quagmire rather than turn it into a good chance to study. Some people reproach or curse other people, some are wandering or wallowing in pain, and some even commit a suicide and harm others since they cannot control the three poisons: greed, anger, stupidity. So you should try to propagate the teachings of the Buddha in your daily life. Propagation of Buddha's teachings is the best security network in our society. There are good things and bad things in life, aren't there? In the case of the Buddhist, when he suffers a bad thing, he thinks that he should make more efforts in the pursuit of Truth. Of course, when confronted with a good thing, he doesn't jump with joy. If your neighbors are suffering from misfortunes, it is necessary to comfort them. But telling them the teachings of the Buddha and how to study spirituality can be more helpful to them. Comfort may be a temporary thing, but getting enlightenment and accepting difficulties as they are is more fundamental healing method.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



행복해 지는 길

이제 번덕이 심하던 초봄의 날씨를 뒤로 하고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인가 봅니다. 이상기 온으로 인해 날씨가 번덕이 심하여 올해는 유난히도 더운 여름을 맞이할 것 같다고들 합니다.

옛날 동산선사에게 한 스님이 묻기를
“추위와 더위가 닥쳐오니 어떻게 피하리까?” 하자
선사가 이르기를 “어찌서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지 않는가?” 하니
“어디가 추위와 더위가 없는 것이옵니까?” 하자
선사가 이르기를 “추울 때는 그대를 몹시 춥게 하고 더울 때는 그대를 몹시
덥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젊은 스님이 도인스님에게 묻기를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어디로 가야 더위를 피 할 수 있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인스님이 “더운 날 시원하고 싶다면 화탕노탄(火湯爐炭) 속을 향해서 뛰어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음속에서 더위가 무서워 자꾸 도망가려고 하면 어느 곳으로 가도 피할 길이 없이 더우며, 마음속에서 더위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가마솥 끓는 물속에 들어가도 덥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더위를 의식하고 사는 것 자체가 더위가 무서워 피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을 일생을 던져도 아깝지 않는 일에 마음을 쓴다면 그 까짓것 더운 것이 뭐 그렇게 문제 될 것이 있겠습니까?

옛날 당나라 때 백장선사라는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백장선사가 설법을 하는데 한 노인이 유심히 눈에 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사가 유심히 보았는데 늘 자신이 설법할 때마다 그 노인은 늘 청중 뒤에서 열심히 듣고 있다가 대중이 물러나면 그 노인도 역시 물러나곤 하더니, 어느 날은 설법이 끝나고 대중이 다 물러났는데도 이 노인만이 버티고 서 있었어요. 백장 선사가 이상히 여겨

“면전에 서 있는 그대는 누구인고?” 하고 물으니 그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저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옛날 옛적 가섭불님이 계셨을 때 저는 이 절의 주지였습니다. 그때 어느 학인이 묻기를 ‘많이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 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고 물었는데, 이에 제가 대답하기를 ‘불락인과(不落因果) 즉,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지요. 저는 이렇게 말을 잘못하여 오백년 동안 여우의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선사께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어 이 여우의 몸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묻기를

“과연 많이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고 물으니, 백장선사가 “불매인과이다.”

즉, 인과에 매이지 말라하고 가르치자

그 말끝에 크게 깨닫고서 인사하여 말하기를

“제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이제 여우의 몸을 벗어나서 뒷산에 있으니 선 사계 바라건대 죽은 승과 같이 장례를 치워주십시오.”

하였다는 것이예요..

여기서 백장선사는 불매인과(不昧因果)라 즉 도를 통한 사람은 인과에 어둡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도를 통한 사람은 인과에 어둡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불락인과(不落因果)와 불매인과(不昧因果) 단 한글자의 차이에서 노인은 여우의 몸을 받았으며, 단 한글자의 차이에서 여우의 몸을 벗어나서 해탈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과에 떨어질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심에서 여우의 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도를 통한 사람은 인과에 연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도 같은 것입니다. 더위에 연연을 하지 않으면 더위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 인연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과 끝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불행해 지는 것이지요.

파랑새란 유명한 동화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울한 크리스마스 전날 밤 가난한 나무꾼의 아이들인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부잣집 아이들의 파티를 보며 참 부러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나서 ‘병든 딸의 행복을 위해서 파랑새를 찾아와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주변 사물의 영혼까지도 볼 수 있는 다이아몬드 마술 모자를 얻게 된 남매는 개, 고양이, 빛, 물 사탕 등의 여정들과 함께 파랑새를 찾아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은 추억의 궁전, 밤의 궁전, 행복의 궁전, 미래의 궁전 등 차례로 방문하여 온갖 모험을 겪지만 끝내 파랑새는 찾지 못 해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치르치르와 미치르르는 자신들이 오래 전부터 기르던 비둘기가 파란색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두 아이들은 무엇을 찾았습니까? 파랑새라는 행복을 위해 많은 곳을 여행했지만, 정작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바로 자신의 옆에 있었는데도, 지나간 여정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살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또 다른 곳에서 공기를 찾고 있는 셈입니다. 물의 청량함을 느끼면서 더 좋은 물을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행복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진리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밖에서 진리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서 다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서나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간혹 불자 중에는 불교를 ‘부처 믿는 종교’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자기를 찾을 생각보다는 밖에서 무엇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마음자리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자신의 깨끗한 본래성품이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불교의 가르침은 스스로 자신의 불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주변에 행복이란 두 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목 련

김용락

효목시장 옆

한전 대구지사 앞 뜰 자목련이

오전 봄비에 꽃잎 붉게 병글게 하는 바로 그 힘으로

나도 혼신을 다해 누군가를 병글게 하고 싶다

그날 오후

한전 대구지사 앞 신호등에 걸려 쳐다본

서쪽 하늘에 저녁놀 피어오르고

도심 고층 건물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막막하게 날개짓 하던

외로운 새 한 마리 보았다

아침 동네공원에서 만났던

낮익은 구조조정 해고자의 모습을 그 막막한 하늘에서 보았다

자목련 붉게 피던 그 봄날에

김용락 | 경북 의성 출생

1984년 창작과비평 신작 시집<마침시인이여>로 등단

시집 『푸른 별』 『기차소리를 듣고 싶다』 『시간의 흰 길』

『조탑동에서 주위들은 시 같지 않은 시』 등 다수

현재 경북외국어대 교수

시인의 마음

꽃피는 봄날이다.

때 아닌 3월 '폭설'로 우왕좌왕 하던 '그때'는 어느 듯 잊혀지고 지금은 천지가 꽃이다. 시간은 이렇듯 어제를, 좀 더 과거를, 때론 역사의 현장이었던 한 때를 까마득히 지우고 눈앞에 화려한 빛깔의 꽃잔치를 열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꽃에 그저 마음이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꽃'을 매개 삼아 타자를 바라보고 시대를 전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시인' 이리라.

오래된 시집에서 한 편의 시를 읽었다.

서녘 하늘에 저녁노을이 피어오를 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시인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추어 서 있을 동안 '도심 고층 건물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 막막하게 날개 짓 하던/ 외로운 새 한 마리'를 본다.

자연의 숲에서 깃을 내리고 살아가야 할 새가 무리에서 떨어져 까마득한, 하늘과 맞닿은 고층 건물을 배경으로 '막막'하게 날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잃었기 때문일 것이다. 새의 모습에서 시인은 '아침에 동네 공원에서 만났던' 구조조정 해고자의 '그 막막'한 모습을 읽는다. 시인의 눈이다.

인간의 생존에 관여하는 주체중 하나가 되어 있는 '전기'회사 앞 신호등에 걸려 잠시 멈추어 선 동안 삶의 터를 잃은 '새'를 봄과 동시에 그 회사 앞뜰엔 오전에 내린 봄비의 힘을 빌려 '꽃 잎 붉게 병글'고 있는 '자목련'도 있음을 본다. 그리고 자연의 치열한 생존 현장을 목도한 시인은 '혼신을 다해 누군가를 병글게 해주고 싶다'고 고백한다. 그것은 바로 시인의 마음이다. 김용락 시인의 시(자목련)은 2000년에 펴낸 『시간의 흰 길』이란 시집에 수록된 시편이다. 10년 전 자목련 피는 봄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막막하게 날고(살고)있는 타자(이웃)들을 보며 '혼신을 다해 붉게 필수 있게'해 주고 싶었던 시인은 여전히 '막막함'이 존재하는 이 도시에서 '누군가를 병글게'하기 위해 아직도 혼신을 다하고 있으리라. '폭설'의 나날들을 잊고 꽃에 취해 휘청이다가 붉게 피고 있는 자목련을 통해 시인의 마음을 다시 읽는다.

_김은령(시인)

일타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생활속의 기도법

광명진언을 외우며

1) 생활 속의 천도법

우리 불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천도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은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일이다. 죽은 이가 무량한수명과 무량한 빛의 부처님인 아미타불께 의지하여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또 ‘지장보살’을 부르는 방법도 있다.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해탈시킨 다음 부처가 되겠다.”고 맹세한 지장보살의 원력(願力)에 의지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장보살은 염라대왕을 비롯한 명부의 10대왕이 심판을 할 때 심판 받는 이의 옆에 서서 해탈 법문을 설해 주고, 또 염라대왕에게 좋은 판결을 내려 줄 것을 부탁 한다고 한다.

이밖에도, <지장경>, <금강경>, <아미타경> 등의 불경을 읽어 주면서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방법도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역시 이 경우에도 경을 입으로만 외워서 안된다. 스스로 뜻을 해독하여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읽어야 한다. 경을 읽어 주는 것은 곧 설법을 하는 것인데, 읽는 사람이 뜻도 모르고 읽는다면 어떻게 죽은 이의 영혼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밖에도 다라니를 외우거나 사경(寫經)을 하거나 영가에게 보살계(菩薩戒)를 주는 등의 여러 가지 천도방법이 있지만 나의 경험으로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가장 빨리, 그리고 크게 효험을 본 것으로 광명진언 천도법을 꼽을 수 있다. 광명진언(光明眞言)은 29글자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진언이다.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타야 흠

이 진언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지혜의 힘으로 새로운 태어남을 얻게 하는 신령스러운 힘을 지니고 있다. 아무리 깊은 죄업과 짙은 어두움이 마음을 덮고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광명 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맑아지고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 이 진언을 외워 영험을 얻는 원리이다. 일찍이 신라의 고승원효대사(元曉大師)는 그의 저서 <유심안락도 游心安樂道>에서 이 진언의 공덕을 크게 강조하였다.

만일 중생이 이 진언을 두 번이나 세 번, 또는 일곱 번을 귀로 듣기만 하여도 모든 죄업이 없어지게 된다. 또 중생이 십악(十惡)과 사역죄(四逆罪)와 사중죄(四重罪)를 지어 죽은 다음 악도에 떨어질지라도 이 진언을 외우면 능히 해탈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그릇에 흙이나 모래를 담아놓고 이 진언을 108번 외워 그 모래를 시신 위에 흘거나 묘지 또는 묘탑(墓塔) 위에 흩어 주면 비로자나부처님의 광명이 망인에게 이르러 모든 죄업을 소멸시켜 줄 뿐 아니라 서방 극락세계의 연화대로 인도하게 된다.

.....

비록 남이 지은 공덕을 자기가 받는 이치는 없다고 하지만, 인연만 있으면 생각하기 어려운 힘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진언을 외우고 모래를 뿌려보라. 곧 새로운 인연이 맺어질 것이다.

.....

모래를 묘위에 흘리는 것만으로도 극락왕생하거늘, 하물며 진언으로 옷을 지어 입고 소리를 내어 외우면 어찌하겠는가? 모래를 흘리는 공덕보다 진언을 외우는 공덕이 더 수승함은 말할 것도 없다.

실제로 원효대사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바가지에 강변의 깨끗한 모래를 담아 광명진언을 108번 외운 다음, 그 모래를 묘지나 시신 위에 뿌려 영가를 천도했다고 한다. 우리 불자들이 성묘 또는 묘사를 지내러 갈 때 이러한 모래를 준비하여 조상들의 묘위에 뿌려 줌이 좋으리라. 그리고 집안에 상(喪)을 당했을 때, 절에서 49재를 지냄과 동시에 그 49일 동안 집안에서 매일 광명진언을 외워주면 매우 좋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좋다. 향 한 자루가 타는 30분이면 족하다. 망인(亡人)의 사진 앞에 앉아 입으로는 광명진언을 외우고 마음으로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면 된다. 틀림없이 크나큰 영험이 있을 것이니, 상주가 된 불자들은 적극 실천해 보기를 당부 드린다.

2) 영가의 장애가 있을 때도 광명진언

광명진언은 망인의 천도뿐만 아니라, 영가의 장애가 있어 원활한 삶을 이루지 못할 때 외위도 큰 효험을 볼 수가 있다. 사람들은 불행이 닥칠 때 흔히 들 조상을 탓한다. “조상도 무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 뒤에는 부모, 친척, 조상 등의 영혼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뜻이 숨겨져 있다. 바꾸어 말하면 영가의 장애로 말미암아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 시원스럽게 풀리지 않고 더욱 꼬이기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병이 들어 병원을 가도 병명조차 밝히지 못하게 되면 영가의장애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답답한 마음에 점장이를 찾아가면 제삿밥을 받아먹지 못하는 등의 죽은 조상을 들먹이면서 굿 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영가의 장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영가의 장애가 있다. 특히 꿈 가운데 영가가 자주 보이게 되면 영가 장애의 신호로 보아도 거의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삶의 어려움이나 영가의 장애가 찾아 든다고 하여 굿을 하는 등의 미신(迷信)에 빠져서는 안된다. 미신은 다른 것이 아니다. 자기의 바른 마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힘에 끌려가게 되면 그것이 미신이다. 특히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은 적절한 방법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만약 지금 ‘나’에게 영가의 장애가 있다면 광명진언을 외워보라. 삼칠일[21일]을 기한으로 삼고 매일 밤 향 하나를 피워 놓고 30분씩만 광명진언을 외우면 모든 장애는 저절로 풀어진다. 장애가 풀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방해를 하던 영가가 우리를 도와주기까지 한다. 나는 40여 년 동안 영가의 장애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광명진언법을 알려주었고, 그 결과 광명진언을 외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가피를 입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영가도 증생이다.

광명진언의 묘한 힘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진언의 위력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가짐 또한 중요하다. 곧 어떠한 경우라도 영가를 쫓아내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서양의 종교나 무속에서는 영가의 장애가 생기면 이를 악마의 장난 또는 사된 영혼으로 인정하고 무조건 쫓아내려고 한



귀신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 과 쫓아내는 것은 그 의미가 너무나 다른 것이다.

다.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다르다. 영가는 추방당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구제를 해주어야 할 또 하나의 중생이다. 도리어 장애를 일으키는 영가일수록 제가 안착해야 할 세계로 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중생인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귀신을 추방하겠다는 자세로 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천도(薦度)는 말 그대로 피안[度]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과 쫓아내는 것은 그 의미가 너무나 다른 것이다. 영가를 추방의 대상으로 보아서서는 제도는커녕 싸움만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영가의 세계를 달리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과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을 나누듯이 영가에게도 정을 쏟고 마음을 주면 되는 것이다.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는 자비심으로 대하면 그릇된 일이 어찌 일어나겠는가? 더욱이 광명진언과 같은 불가사의한 힘이 함께 하고 있으니...

만약 선대 조상이나 가족, 친족, 친구 중에서 마음에 걸리는 이가 있다면 삼칠일의 기간을 정하여 광명진언을 외우며 기도해 주도록 하자. 그리고 유산, 낙태 등으로 마음에 걸리는 부모가 있다면 '나'와 인연이 닿지 않은 그 영(靈)을 위하여 삼칠일 기도를 해주는 것이 좋다. 부디 명심하라. 귀신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 모두가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고 정으로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광명진언이나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 주고 망인의 이름으로 공덕을 쌓도록 해주고 축원을 해주면 반드시 천도, 곧 피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참된 불자답게 천도를 할 일이 있으면 법에 맞게 천도를 하자.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은 맑아지고 밝아진다. 법다운 천도야말로 영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피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리라.



죽순은 제철일 때 한꺼번에 많이 삶아서 한번에 먹을 양 만큼 나눠 냉동실에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쭈개떡도 마찬가지. 한꺼번에 많이 썰서 기름을 발라 쪄켜어 쌓아 냉동실에 보관하여 두고두고 먹습니다. 쭈개떡을 두껍게 빳을 때는 콩이나 팥을 떡 위에 심어 쪄도 별미입니다. 죽순은 채소와 함께 즙을 내어 마시기도 하는데, 소화흡수를 돕고, 간의 활동을 도우며,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특히 여자들에게 좋습니다. 죽순은 무기질과 비타민이 특히 풍부한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A가 많이 들어 있어 하루에 80그램만 먹으면 필요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불가의 먹거리 지혜

스님들의 공양은 원칙적으로 발우를 사용합니다. 발(鉢)은 범어로 발다라(鉢陀羅)의 약칭, 우(盂)는 중국말로 밥그릇이라는 뜻으로 풀이하자면 각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을 공양하는 그릇, 즉 응량기(應量器)를 말합니다. 발우는 성불하신 부처님께 사천왕이 나타나서 발우 한 개씩을 가지고 하늘 꽃을 담아 부처님께 올리니, 부처님께서 받아 네 개를 하나로 포개신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스님들은 발우 공양을 할 때 마치 부처님을 모시고 함께 공양하는 마음가짐으로 소중하고 경건하게 임하는데 이에 깃든 정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대중이 차별 없이 똑같이 나누어 먹는 의식 속에 깃들어 있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평등 공양 사상. 둘째, 자신이 먹을 음식을 자신의 발우에 덜어서 먹는 청결 공양 사상. 셋째, 음식을 조금도 남기거나 버리지 않고, 먹을 만큼만 덜어 먹는 절약 공양 사상. 넷째, 한 술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식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공동 공양 사상.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강 유지만이 아니라 이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고생한 모든 이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널리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양약으로 먹겠다는 복덕 공양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선재 스님

선재(善財)스님은 80년 경기도 화성 신홍사 청소년 수련원의 성일 스님은 은사로 출가해, 여러 선방에서 정진했다. 94년 중앙승가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으며, 졸업논문으로 <사찰음식문화연구>를 발표했다.

이 논문을 통해 그는 경전을 근거로 하여 사찰음식의 특징과 유형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이야기한 바 있다. 그후 그는 생명에 위협을 받을 만큼 심한 간경화를 앓게 되었고, 건강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사찰음식을 선택하게 된다. 95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불교TV <푸른 맛, 푸른요리>를 통해 사찰음식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때부터 보리사에 직접 찾아오고, 전화로 문의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사찰음식에 대한 상담을 해주게 된다. [선재스님의 사찰음식]은 바로 그의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 만들어졌다. 현재 그는 여주 보리사에 머물면서 사찰음식 연수생들을 지도하는 한편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학과 겸임교수이자 선재사찰음식연구원 원장으로 사찰음식을 지도하고 있다.



죽 속 전

재료 삶은 죽순 40g, 피망 ½개, 감자 2개, 밀가루 1컵, 소금 ½큰술, 식용유 약간

1 삶은 죽순은 반으로 갈라 도마 위에 두고 망이로 자근자근 두들긴다. 피망은 씨를 털고 다진다.

2 감자는 껍질을 벗겨 강판에 간다. 여기에 밀가루, 다진 피망을 넣고 소금간한다.

3 잘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다. 손질한 죽순을 2에 담갔다가 팬에 올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굽는다.



죽순 장아찌

재료 죽순 1kg, 쌀뜨물·된장 적당량, 진간장 1½컵, 집간장 ½컵, 다시마(20cm)1장, 물½컵, 물엿½컵

1 죽순은 생으로 먹으면 독이 있으므로 쌀뜨물에 된장을 넣고 센불에서 20분 정도, 이어서 약한불에서 30~40분 정도 삶는다. 삶은 후에는 물에 씻지 않고 그대로 식히는데 찬물에 씻으면 영양소가 빠져나가고 질겨지기 때문이다. 식힌 후에는 껍질을 벗겨내고 물에 3분 정도 담가놓으면 독성이 빠져나간다. 4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 나오는 맹종죽은 아린 맛이 강하기 때문에 꼭 물에 담갔다 써야 한다.

2 냄비에 분량의 진간장, 집간장, 물, 물엿, 다시마를 넣고 끓으면 죽순을 넣고 살짝 끓인 후 죽순만 건져 항아리에 담는다. 간장이 식으면 죽순 위에 붓는다. 간장에 죽순을 넣고 끓인 것을 그대로 보관하면 장아찌가 너무 짜다. 며칠 후 간장만 따라내서 다시 한번 끓인 후 죽순에 부어 보관한다.

승랑 · 원측 · 혜초 · 도의 2

한편 중국에서 새롭게 일어난 선(禪)은 선덕여왕에서 헌덕왕 대에 활동했던 도의 스님에 의해 신라에 전해졌다.

선선한 계절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
선선한 신라 땅에
선(禪)이나 전하자.



도의 스님

도의 선사는 중국으로 건너가 마조 선사의 큰 제자인 서당 지장 선사를 스승으로 삼아 크게 깨치었고

내가 도의를 만난 것은
마치 돌 사이에서 옥을
취하고 조개 속에서
진주를 주운 것과
같도다.



그 후 백장 선사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고,
역시 큰 칭찬을 받았다.

와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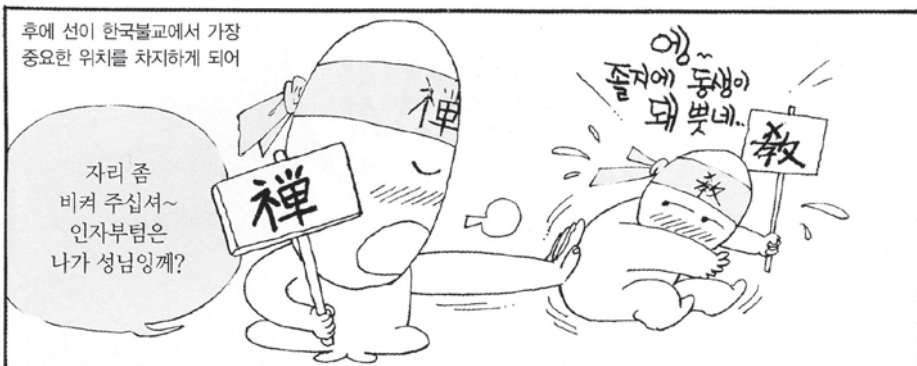
강서의 선이 모두
이 동쪽나라(신라)
승려에게 있구나!



공부를 마친 도의 스님은 신라로 돌아와 선을 가르쳤으나
당시는 교학 불교가 성하여 푸대접을 받았는데



후에 선이 한국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도의 국사는 한국 조계종의
종조로 숭앙받기에 이르렀다.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주지스님께 올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주지스님께 때늦은 춘설이 분분(紛紛)하는 여주 신록사 강변에서 삼가 엎드려 이 글을 올립니다.

바야흐로 만물이 생명의 기지개를 켜는 봄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초목들이 하나둘씩 꽃망울을 틔워내고, 얼음 풀린 강물 위에는 검둥오리들이 유유히 대화엄의 물결무늬를 그리며 천진난만하게 헤엄을 칩니다. 강변을 거닐다보면 계절의 섭리를 좇아 광대무변(廣大無邊)의 우주를 맴돌아오는 봄바람이 더없이 훈훈하고, 발길 닿는 곳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준동함령(蠢動含靈)의 벚들이 부지런히 꿈지락거리며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지금 신록사 강변은 아직도 겨울일 뿐입니다.

그렇듯 여법(如法)한 꿈과 희망의 봄이 이곳에는 차마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봄은 왔으되, 봄 같지 않는 봄날만이 자꾸 저만치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동감 넘치는 생명의 축제가 시작되어야 할 강변에 오히려 깊고 어두운 고통과 절망의 색채들만 자욱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반짝 시샘을 곧추세운 꽃샘추위 때문이 아닙니다. 난데없이 훔날리는 분분설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고집불통으로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공사 때문입니다.

‘경부운하’에서 ‘한반도 대운하’로, 다시 ‘치수(治水)’, ‘물길 복원’, ‘홍수 예방’ 등으로 현란한 변신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4대강 살리기’ 라는 간판을 선택한 전대미문의 토목 공사가 바투 이 땅의 어머니, 강의 속살을 날날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아니 된다고, 그것만은 아니 된다고 무려 70%가 넘는 국민들이 그리도 읍소(泣訴)하였건만, 국민의 혈세를 쪼개어 이익을 챙기려는 몇몇 집단의 물욕에 눈이 멀어 이 정부는 마침내 멀쩡히 살아 숨쉬는 강의 심장에 중장비라는 비수를 들이대고 말았습니다.

여기, 지금 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자대비 못 중생의 어머니, 천강(千江)의 보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눈보라가 이내 봄비로 바뀌고, 대륙에서 휘몰아쳐 온 황사가 누렇게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입때껏 단 한 번도 드러내 본 적이 없는 심연의 속살을 허영게 드러내고 고통과 치욕으로 몸부림치는 강을 바라보노라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집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짓거리를 이리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역겹의 세월이 만들어낸 모래톱과 하중도(河中島)를 송두리째 빼앗긴 진흙탕 강물들이 가야할 길을 잃고 꺾꺾 메마른 울음을 참고 있습니다. 큰고니, 왜가리, 검은댕기해오라기, 두루미, 종다리, 물총새, 개똥지빠귀 같은 하늘의 날짐승과, 누치, 피라미, 쉬리, 쏘가리, 버들치, 동자개, 각시붕어, 모래무지 같은 물짐승과, 고라니, 오소리, 수달, 표범장지뱀 같은 물짐승들이 모두 길을 잃었습니다. 어미를 잃고 울부짖는 어린 생명들의 울부짖음이 처연하기만 합니다.

“천지가 모두 나와 한 뿌리요, 만물은 모두 나와 한 몸”이라는 「벽암록」의 말씀도 오늘 여기 대한민국의 ‘4대강 살리기’ 공사 현장에서는 다만 부질없는 메아리가 되어 거친 소용돌이 속을 떠돌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중생은 그 뿌리가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는 「화엄경」의 일깨움도, “모든 땅과 물은 나의 옛 몸이요, 모든 불과 바람은 나의 본체”라는 「범망경」의 가르침도 덧없는 인간의 욕망아래 아무렇게나 나뉘고 있습니다.

신록사 앞 저 유장했던 남한강은 이미 본래면목을 거의 잃었습니다. 날마다 그 참혹한 강변에 나가 합장하고 절 올리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작고 보잘 것 없는 수행자의 육신을 던져 이 잔인한 폭력과 살생을 멈출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노라고 서원을 세웁니다. 무릇 부처님의 법으로 밥을 먹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잠을 자는 출가 납승은 세속의 이혜타산이나 갑론을박에 대하여 초연해야 함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4대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은 정치나 경제와도, 그렇다고 환경이나 생태라는 말과도 너무 거리가 먼 무자비한 파괴와 살육의 현장에 다름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절박한 목적이나 수단도 이렇듯 천지간의 유정무정을 무참히 도륙하고, 못 생명들의 삶의 터전을 죽음의 땅으로 뒤덮는 만행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무엇이든, 경제적인 필요성이 얼마만큼이든, 이미 그것은 둘째이며 셋째의 문제입니다. 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엄 대지의 혈관입니다. 그 혈관이 마디마디 가로막히고 더러움에 오염되어 더 이상 그 어떤 기능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도 끔찍할 것입니다.

불살생(不殺生)을 으뜸 계율로 삼아 더없이 고결한 무상사(無上士)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로서 창자가 끊어지고 살점이 뜯기는 이 대자연의 고통을 어찌 함께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불교는 일찍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 위대한 팔만대장경 판

본에 아로새겨 잔혹한 침입과 약탈에 항거하였으며, 청허 휴정 대덕께서는 정벌 야욕에 눈이 멀어 살육과 만행을 저지르는 침략자들을 향해 기꺼이 주장자를 내려놓고 창검을 든 바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라는 허울을 쓴 이 야만의 토목공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이익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그것이 이루어주는 효과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여도 대자연이라는 실상의 법당(法堂)을 파괴하여 얻은 것이라면 ‘하루아침 티끌로 변하고 말 백년 탐물(貪物)’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토록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장차 대대로 그곳에 깃들여 살아가야 할 미래의 희망마저 송두리째 앗아가는 사업이라면 더욱 한시라도 빨리 멈추어야만 하는 변고일 뿐입니다.

아,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낮과 밤을 다투어 기계소리 요란하고 강은 속절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강변 모래톱이 사라지고, 갈대숲이 사라지고, 새들의 보금자리였던 섬이 사라집니다. 대대로 농사짓던 강변의 옥답은 준설토를 쌓아놓은 거대한 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부가 홍보하는 텔레비전 속의 ‘4대강 살리기’가 아닌, 이 현장을 단 한번만이라도 직접 본 사람이라면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4대강 살리기’는 지금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은 물론 그 지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 국토에서 거의 동시다발로 이 살벌한 ‘4대강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가 불교의 진면목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물질만능의 시대를 거쳐 오로지 자분을 유일한 목적으로 여기는 시대가 저지르는 가장 극단적이고 무책임한 만행에 대하여, 종교의 종교다운 자비와 분노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들은 우선 다급한 대로 강변에 부처님을 모시고 ‘4대강 살리기’란 미명아래 고통 받고 신음하는 영혼을 위한 수륙재(水陸齋)를 수시로 봉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알량한 원력으로는 도저히 이 엄청난 재앙과도 같은 탐욕의 질풍노도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부디 포교원장 스님 및 포교원 소임제위께서 법륜의 수레를 타고 회상(會上)을 이끄시어 삼천대천세계의 율법이 그와 같이 엄중함을 증명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보잘 것 없는 긴 글 읽어주시어 고맙습니다.

불기 2554년 3월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 추진위원회
보선, 수경, 혜자, 퇴휴

법왕사 소식

■ 만불전(원불) 이운봉안법회 및 점안법회

3월11일(목요일) 오전11시 원불이운봉안 및 점안대법회가 만불보전 3층에서 주지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삼천불전에 모셔져 있던 원불을 문화관3층 만불보전으로 이운한 후 접수된 100여 불의 원력 성취부처님을 점안 봉행하였다.

점안의식(點眼儀式)은 불교신앙의 대상에다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는 의식으로 개안의식(開眼儀式)이라고도 한다. 불상이나 불화, 만다라, 석탑, 불단 등을 새로 만들거나 개수 하였을 때 반드시 이에 공양하고 불구(佛具)의 근본서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법하게 점안의식을 행한다.

〈석문의법〉 점안편에는 불상점안과 나한점안, 시왕점안, 천왕점안, 조탑점안, 가사점안등 예닐곱 가지가 나온다. 모든 불상이나 탑은 종이, 돌, 천, 나무의 천연물에 불과하다. 그 자연물에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바느질을 하면 일종의 예술품이 된다. 그런데 예술품을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살아 게실 때의 불보살의 위신과 영감을 불어 넣게 되면 같은 돌, 나무, 천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부처님의 영험과神通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불구에는 가능한 한 점안의식을 베푼다.

※ 1. 불상점안(佛像點眼): 불상의 점안에는 팔부신장을 청하여 도량을 옹호하게 하고 시방의 불보살님께 오늘의 불상.

탱화에 대한 내력을 설명한다.

도량을 청정히 한 다음 부처님부와 연화부, 금강부 등을 초청하여 오늘 이 도량에서 점안을 거행함을 아뢰고 증명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한다.

육안, 천안, 혜안, 법안, 불안, 십안, 무지안을 원만히 성취하도록 빌고 권공 예배한다.

오색실을 사용하여 부처님의 천안통과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숙명통, 누진통, 신동력, 용맹력, 자비력, 여래력이 청정하게 성취되기를 기원한 뒤 불상의 눈을 붓으로 그리게 된다.

개안광명진언(開眼光明眞言), 안불안진언(安佛眼眞言), 관욕진언(灌浴眞言), 시수진언(施水眞言), 안상진언(安相眞言)등으로 부사의 한 힘을 얻게 된다.

나한점안, 사천왕점안, 시왕점안 등도 불상점안에 준하여 행하며, 다만 상호의 특징에 따라 발원이 다르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비로자나불을 비롯한 삼신불께 증명을 받는 불상증명찬불로 마친다.



1



2



3



4



5



6

1 주지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점안의식을 봉행하는 모습 2 점안 후 원불 꼬깔을 벗기는 모습

3 점안한 원불에 눈을 그리는 모습 4, 5, 6 비로자나 부처님의 무량광명을 비추는 모습

■ 야외산신단 특별기도봉행

2010년 3월5일(금요일)은 12년만에 한번 오는 호랑이해[庚寅年], 호랑이달[戊寅月], 호랑이날[壬寅日], 호랑이시[庚寅時]가 있는 즉, 4마리 호랑이가 있는 날이다. 조선시대에도 사인검(四寅劍)을 이 상서로운 시간대에 만들어 장군들에게 하사한다고 한다. 불가에서도 만물이 다시 한 번 용솟음친다는 이 시간에 일어나 도량석을 들고 새벽예불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일체의 싯된 기운을 몰아내고 청정하고 맑은 기운이 가장 충만한 백호의 해, 인시(寅時: 새벽3시 ~ 5시)에 새벽을 열기 위하여 60여명의 신도 분들이 야외 산신단에서 주지스님을 모시고 특별기도를 봉행하였습니다. 인(寅)은 범을 상징하고 절집 안에서는 산왕대신(山王大神)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 법왕불교대학3기입학식 및 개강

지난 12일 만불보전에서 법왕사 법왕불교대학 3기 신입생 입학식을 거행 하였습니다.

학장스님께서서는 축사에서 “불교의 진리를 모르고 절에 다니면 맹신이고 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신앙을 하면 미신이며 종교인도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한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안내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입학식 후에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으니 아직 등록하지 못한 이웃들에게 서둘러 입학하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학식 2 찬불가 연습 3 발원문

■ 불화반 개강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정수인 불화(탱화)를 직접 그리며 부처님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미술이기 이전에 불화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예술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난 3월 5일 만호 영범스님을 모시고 불화반 개강을 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K.T직장불자봉사모임인 진여회 정기법회

지난 1일 “건전한 직장인, 여법한 도덕인, 봉사하는 진여인”을 주제로 결성된 KT 진여회에서는 법왕사복지관3층 만불보전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주지스님께서서는 “인간만사 새옹지마(人間萬事 塞翁之馬),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화가 복으로 돌아 올 수 있다”라고 법문을 하셨습니다.

■ 부처님출가에서 열반까지 8일간 팔상성도 특별법회 회향

백고좌법회 원찰도량인 대구 법왕사에서는 20여 년간 매년 출가에서 열반까지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생과 가르침을 되새겨 보는 팔상성도특별대법회가 경학과 수행을 겸비하신 비구니8인스님을 초청하여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정진주간”으로 정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8일간 자비도량참법 3000배 참회기도를 마지막으로 회향하면서 주지스님께서서는 서산대사의 시 벽암록에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여기’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라며 이 소중한 청법동참인연을 계기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나의 지견으로 하여 더욱 밝고 희망차며 행복한 삶을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1



2



3

1 팔상성도 특별법회 2 단체사진 3 자비도량참법회향

■ 한들경로당과 상동 공원 경로당을 다녀오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증진 사업 일환으로 『아부지 어무이요! 저희 왔슴데!』에 우리 법왕사에서는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난 3월20일 오후 묘도스님과 함께 미리 준비한 떡과 쌀, 음료수를 가지고 경로당2곳을 다녀왔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한 달에 한 두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름다운 인연,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법왕사 불자님들도 봉사자로서 함께 동참하여 동사섭(同四攝)을 실천하는 불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법왕거사림정기법회

지난 3월4일 목요일 거사림회는 법우님들의 화합과 친목을 위하여 정월대보름날 계획되었던 율놀이 행사를 법왕사 문화관 1층 강의실에서 한마당 화합의 장을 펼쳤다.



■ 무소유 법정스님 다비식

3월13일 토요일 오전11시 순천 송광사 법정 대종사 다비식에 동참하기 위하여 법왕사에서 40여명의 신도님들이 관광버스 1대를 대절하여 다비식에 동참하였다. ‘거화(攀火)’후 참나무 장작에 불이 붙자 동참한 만여 명의 신도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스님! 불 들어갑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하고 낮은 흐느낌과 함께 곳곳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며 무소유 향기를 남기고 먼 길 떠나는 법정스님을 지켜보며, 모두 함께 극락왕생을 빌었다. 송광사 다비식에 참석하러 돌아오는 길에 1200년 된 보물 159호 마애불이 있는 함안 마애사를 참배하였다. 이 곳은 고통 받는 가정을 구제하고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며 또 자식이 귀한 집에는 자식을 낳게 해 준다하여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한다.



■ 초사를 신중기도 회향

허공계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재하고 계신 화엄성종님께서는 중생의 선량한 마음과 항상 함께 하시며 간절히 기도하는 중생을 보살펴 주십니다. 법왕사에서는 지난 16일 초하루기도법회를 맞이하여 200여 신도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되었다. 이날 주지스님께서는 ‘수행자나 리더자 속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격에 장애가 있거나 능력에 장애가 있기 때문’이라고 법문을 하셨습니다.

🌿 사찰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합니다.

맑고 아름다운 우리 절 법왕사는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축복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예식장입니다. 주지스님의 주례는 물론 대법당과 공양실, 넓은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결혼 경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류대신 콩을 주재료로 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결혼식 하객들에게 정성을 다해 제공할 수 있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 자원 봉사자를 모십니다.

부처님의 행복한 미소 속에서 “아름다운 인연,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하는 봉사자님들을 기다립니다.

🌿 조계종 신도증 발급안내

아직도 조계종 신도증이 없으시다고요? 저희 법왕사로 오세요.

신 규: 반명함판 사진 2매, 신도교무금 1만원

재발급(기존신도증소지자): 반명함판 사진 2매, 재발급수수료 1만원, 당해 년도 교무금 1만원

※ 신도 등록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후 종무소에 제출하시면 4주 이내 신도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

“나눔이 있어 행복한 세상, 작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법왕 불교대학 문화강좌

문화강좌에 신도님을 모집 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우담바라 합창단**(수요일 오후 2시)
정무시 선생님
- 대구·경북 불교음악인협회 회장
- **사물놀이반**(월요일, 목요일 오후 2시)
법일 박성경 선생님
환경 문화 예술단 회장
- **꽃꽂이회**(금요일 오후 2시)
임상덕 선생님
- 민플라워 강사(경력20년)
- 법왕사 꽃꽂이회 지도 선생님
- **불화반**(매주 금요일 10시)
만허(영범)스님 - 세심사 주지
- **전통현대무용반**
김지연 선생님 - 이상화 무용단 단장
- **요리반**
황미선 선생님
- 수성케이블방송, 푸른방송,
TCN케이블방송,
“황미선의 행복한 밥상” 진행자
- **노래교실** 장인환 선생님
- **서예교실** 류영희 선생님
- **에어로빅** 현미숙 선생님
- **요가교실** 태광스님



1만5천부를 발행하는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광고효과와 열독률이 높습니다. 법우여러분께서 협찬하시는 광고는 제작비에 충당되며 더 좋은 소식지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오니, 사업장을 열고 계시는 법왕법우님들이 많이 동참하시어 법왕사보의 발전에익일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의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법보시 받습니다.

사보구독
(신청·변경·취소)
문의: 053) 766-3742
766-3747

법보시계좌 (무통장입금) 예금주: 법왕사
C M S 039-10-001382
지로번호 3054150
대구은행 047-05-003698-6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게시판

새법우 명단

수성구 김민석 연영선 김정광 김진희 이상호 장현주 이대엽 이효진 김종욱 최현애 김도훈
 서구 석태호 조미영 석승환 석유진 안진석 추현숙 안소연 배문식 추현주 배동연 김봉연 심상욱
 추현미 심부건
 남구 박명일 서정욱 박재균 박지민 달서구 박종태 손향숙 박준영 박광영
 동구 김두진 이새걸 김민호 북구 정찬경 추지민 정민경
 기타 손종배 이권립 손영우 손호민

산신인등 접수 하신 분

102 김준범 103 최재훈 104 조현봉 105 윤동환 106 윤창환 107 윤상흠 108 김숙이 109 송장우
 110 이탁형 111 심규암 112 심해정 113 김세활 114 정성용 115 변영복 116 배준호 117 배성우
 118 김영주 119 한정숙 120 박아란 121 박종진 122 김학동 123 김미숙 124 권정수 125 김은진
 126 권희열 127 김태균 128 정해용 129 김승욱 130 우희숙 131 이태호 132 소병장 133 박재민
 134 양성수 135 김철호 136 최정화 137 박소은 138 박은정 139 정선욱 140 김미령 141 김달호
 142 김말향 143 윤다경 144 윤선민

인등접수 하신 분

31 김두진 32 김민호 33 권준수 50 구제철 51 구재욱 52 구영미 106 서영성 360 이대엽
 369 석태호 370 주미영 371 석승환 372 석유진 260 배준수 427 김동언 640 이혜정 638 박진우
 639 박재우 485 강형구 486 정성향 ※ 지난 3월호 정정 안내 : 인등 250 주풍현 → 조풍현으로 정정합니다.

범종불사 동참 하신 분

신응학

삼존불 동참 하신 분

백정석 황금순 류병영 김상한 전우수 오일 박용관 여상수 송용순

원불보안 하신 분

3079/백미자(관세음보살) 3080/김형길(대일여래불) 3081/오창혁(관세음보살) 3082/신정순(대일여래불)
 3083/오지현(문수보살) 3084/오재대(관세음보살) 3085/정동준(관세음보살) 3086/전명주(지장보살)
 3087/정서하(문수보살) 3088/정현숙(관세음보살) 3089/이소영(문수보살) 3090/김일수(대일여래불)
 3091/석태호(관세음보살)中
 김진용(석가모니불) 양혜정(관세음보살) 김준혁(문수보살) 김수현(보현보살)

원불 - 완납 하신 분

3063/이상호(관세음보살) 1091/윤성진(관세음보살) 1092/김말향(대일여래불)
 3034/최준혁(관세음보살) 3039/장소민(문수보살) 2810/김봉남(아니타불)
 1780/백동근(석가모니불) 3109/석태호(관세음보살)中 1626/박종탁(석가모니불)

영가등 접수 하신 분

ㄸ달성후인 서달문 영가 ㄸ반남유인 박동춘 영가 ㄸ추계후인 추천 영가

평생위패봉안

ㄸ이씨영숙 영가 ㄸ강릉유공영철 영가 ㄸ문화류공필보 영가 ㄸ남양홍씨귀순 영가 ㄸ청도김공주위 영가
ㄸ파평윤씨성희 영가 ㄸ인동장공춘식 영가 ㄸ광주이씨수선 영가 ㄸ성산이씨우동 영가

일년등 접수 하신 분

164/정현표 165/홍원호 166/노동근 167/구승우 168/전우수 169/권영구 170/조용호
171/정태중 172/신용흥 173/김점행 174/정상국 175/전애란 176/서복만 177/전재호
178/권무길 179/박종연 180/조만수 181/김병수 182/손삼정 183/서재길 184/김재옥
185/이수란 186/박석홍 187/배준상 188/박승욱 189/박감로화 190/조준승 191/조병완
192/정연수 193/김영숙 194/이봉문 195/김희용 196/손홍락 197/조석호 198/조규창
262/김우한 263/신현식 264/박태철 265/전영표 266/최대성 267/조명래 268/박승우
269/신명균 270/김사형 271/여축동 272/강해석 273/신민호 274/박현덕

왕생극락 하옵소서

- 정소희보살님의 ㄸ엄부 동래후인 정정갑 영가님의 기제사가 3월6일에 있었습니다.
- 류윤만거사님의 ㄸ엄부 문화후인 류필보 영가님의 49재 초재가 3월10일에 있었습니다.
- 최재훈거사님의 ㄸ엄부 영천후인 최종률 영가님의 기제사가 3월10일에 있었습니다.
- 정희순보살님의 ㄸ자모 경주유인 최춘자 영가님의 기제사가 3월13일에 있었습니다.
- 문종옥거사님의 ㄸ자모 유씨학이 영가님의 기제사가 3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문미정보살님의 ㄸ자모 김혜유인 김봉남 영가님의 기제사가 3월20일에 있었습니다.
- 김명식거사님의 ㄸ자모 파평유인 윤성희 영가님의 49재 초재가 3월28일에 있었습니다.
- 장성택거사님의 ㄸ자모 광주유인 이수선 영가님의 49재 초재가 3월31일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보 도움 주신 분
송재호(2,000부) 쌀국수(150부) 가바쌀(110부)
대도심(100부) 최재훈(100부) 윤종대 정유근 김추석
- 대중공양 주신 분
불교대학2기 일동 사공순옥 이세정 조갑순 양문갑
김임태 김명숙 정임형 김점순 장우성 정영미
최병일 김홍연 신범해
- 공양미 보시하신 분
김성도 양봉훈 양지영 백경원 장우성 백미향
- 과일공양 하신 분
박준만 장선정혜
- 황금소나무 보시 하신 분
정광춘
- 묘목 보시 하신 분
최용길
- 범사비 도움 주신 분
묘도스님
- 불사 도움 주신 분
권오삼(1억5천만원) 민기주(2천만원)
- 돼지저금통 회향 하신 분
이희동 민외금
- 법 공양 하신 분
미국사 무이암스님 관음예문 1,000권

2010년 3월 CMS접수 하신 분

초하루, 축원

손향숙(2만원) 김지연(2만원) 이범우(2만원)
 나형진(2만원) 전태일(3만원) 진영덕(2만원)
 이태현(2만원) 송애자(2만원) 이영희(4만원)
 이선미(2만원) 정연이(4만원)

평생위패

정광춘(5만원) 김종현(3만원)

삼존불

김양숙(2만원) 황금순(2만원)

108석등

황미선(20만원) 이미경(10만원) 심명숙(5만원)
 조경희(10만원) 이창형(3만원) 김명술(3만원)
 윤경진(3만원) 이정연(2만원) 조영자(6만원)
 문영자(2만원) 현미숙(2만원) 전숙희(10만원)
 조규인(3만원)

원불봉안

이정훈(3만원) 유해순(3만원) 유혜정(2만원)
 홍순녀(2만원) 김명숙(3만원) 강창현(2만원)
 김금순(4만5천원) 홍정순(3만원) 심규암(5만원)
 이재윤(2만원) 이재윤(2만원) 김순희(2만원)
 김점숙(2만원) 송화중(3만원) 권창훈(1만원)
 옥선혜(3만원) 강승구(4만원)

한평불사

정동준(3만원) 도경식(2만원) 신은영(5만원)
 김의환(2만원) 조병화(10만원) 손인숙(5만원)

임희경(2만원) 전복량(2만원) 류옥연(10만5천원)
 서필희(1만원) 오형호(3만원)

종불사

김상한(4만원)

인등

최미숙(1만5천원) 권정수(1만5천원)
 김영희(2만원) 김순덕(5만원) 한천숙(1만원)
 오창혁(1만원) 김연자(1만원) 신인숙(5천원)
 최동훈(1만원) 김수정(1만원) 김경란(2만원)
 이선영(5천원) 신정옥(4만5천원) 류윤형(5천원)
 정순희(2만원) 황국희(2만5천원) 김분용(5만원)
 권수정(5천원) 서금자(2만5천원) 홍경숙(1만원)
 노수남(5만원) 전수진(1만원) 장옥주(1만원)
 장옥주(1만원) 김명선(2만5천원)
 이숙희(1만5천원) 이숙희(1만5천원)
 이경숙(5천원) 이경숙(5천원) 전재호(1만원)
 성상현(2만원) 이숙희(2만원) 황경란(1만5천원)
 강춘희(2만원) 김경미(2만5천원) 배세종(2만원)
 정분쇠(5천원) 최유자(1만5천원) 서상태(2만원)

산신인등

이상화(5천원)

기타

최은상(3만원) 김재현(1만원) 주석순(5천원)
 전광환(2만원) 정영석(5만원) 이관수(10만원)
 이종량(5만원) 민정기(2만원)

각 재일별 기도 내용

신중기도 / 매월 음력 초하루 ~ 초사흘 / 문화관 3층(만불보전)

원불기도 / 매월 음력 8일 / 3층

신장기도 / 매월 음력 10일 / 3층

인등기도 / 매월 음력 15일 / 3층

산신기도 / 매월 음력 16일 / 야외산신단 오후 3시

지장재일 / 매월 음력 18일 / 3층

관음재일 / 매월 음력 24일 / 3층

다라니기도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반 / 3층

거사림법회 / 매주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 3층

어린이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3층



법왕사 후원 안내

※CMS 후원

- 자동 출금 이체방식(매달 통장에서 약정된 후원금 자동결제)
- 1구좌: 3,000원 이상
- 방 법: 법왕사 방문 및 전화신청

※저금통 후원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님의 도량을 여법하게 꾸며야 합니다. 준다는 마음도 없이 받는다든 마음도 없이 내가 기도할 법당을 내손으로 만들겠다는 발원으로 복지관 기도공간을 마련하는데 단 1원을 모으는 정성으로 돼지저금통 불사에 동참합니다.

- 방법: 법왕사방문 저금통을 수령해 채운 뒤 법왕사 복지관 방문전달
- 문의: 766-3742, 766-3747

법왕사 중흥불사 원만회향에 우리들의 신심과 정성을 모읍시다.

법왕사 개창 이래 오늘날까지 오로지 불사에 진력하여
복지관을 완공하고 막바지 불사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십시일반으로 역사에 기리 남는 법왕사를
만드는데 작은 정성을 기다립니다.

하루에 천원씩, 천일 108만원(108통장) 많은 동참바랍니다.
동참문의 : 종무소 T. 053-766-3742



낙산사 휴휴암 순례법회

봄 향기따라 떠나는 천년고찰 낙산사
성지순례법회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일 시 : 4월 17일 토요일
출 발 : 오전 8시 법왕사 문화관 광장
동참금 : 3만원

※차량 및 중식관계로 미리 접수바랍니다.

법왕사 불사안내

시주자 가족이름 새겨 드립니다.

법왕사에서는 불교종합복지관 준공을 앞두고 복지관광장에 최고의 석공예 장인들이 제작한 다양한 불교 조형물을 설치하여 불자들과 내방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불교조각공원 조성불사를 추진합니다.

법왕사를 참배와 수행의 공간 뿐 아니라 불자가 아닌 분들도 언제나 찾아와 불교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이번 불사에 수희동참하시고 이웃에도 권하여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증득하시고 구경성불하는 좋은 인연맺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법왕사 증무소 T. 766-3747, 766-3742

법왕사 12지신상 불사모연문

12지신은 12방위를 지키며, 각 시간을 나누어 불법을 수호하고 사찰을 수호하는 12신장입니다. 약사여래의 권속으로 약사여래 부처님의 12서원을 행하며, 모든 괴로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며,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법왕사에서는 대구시민을 위한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12지신상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불사란 무연중생에게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며, 인연중생에게 복덕을 지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신심있으신 불자 여러분들도 이번 불사에 동참하시어 환난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인연지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T. 766-3747, 766-3742

경인년 연등공양 (법당1년등) 접수

연등을 밝히는 것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부처님의 지혜로 밝히면 그 공덕이 한량없어
갖가지 재앙을 소멸하고 평안과 번창을 이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어리석음을 걷어내는 광명의 등, 지혜의 등을
밝혀 가내 번창과 평안을 기원해 봅시다.

▶ **사업등, 특등**

만불보전에 1년간 달아 드리고 주지스님께서 매일 축원해 드립니다.

▶ **1년연등, 영가1년등**

만불보전에 1년간 달아 드립니다.

▶ **번영, 쾌유, 합격, 승진의등**

1인등으로 재일과 사시기도때 스님께서 축원해드립니다.

○ 가족등: 10만원

○ 영가등: 5만원

○ 사업등: 100만원

○ 특등: 100만원

※ 동참금은 분납가능합니다.

※ 사업등에는 사업체이름을 넣어드립니다.

문의 및 접수 : 법왕사 종무소 T. 766-3747, 766-3742

법왕사 불사기금 마련을 위한

범주스님 선묵화전

퍼포먼스 일 시: 2010년 5월 7일(금) 오후 2시

전 시 일 시: 2010년 5월 7일(금) ~ 5월 21일(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전 시 장 소: 법왕사 전시실



달마(Bodhidharma)에서 나오는 맑은 기운이 그림을 보는 이에게 전해져 마음은마음을 맑게 해준다는 달마도.

그 달마도를 40여년간 그려온 범주스님의 달마퍼포먼스를 법왕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흥익대 미대를 졸업한 뒤 출가를 하신 범주스님은 수행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달마도를 그려오셨는데, 얼마 전 서울 조계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혼을 달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대형 달마도를 그리기도 하신 범주스님의 이번 전시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바랍니다. 이번 전시기간중 판매되는 달마도의 판매수익은 법왕사 대웅전 불사에 사용됩니다. 범주스님의 달마작품과 함께 법왕사 불사의 인연공덕을 함께 지을 수 있는 이번 전시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범주스님 프로필〉

- 1966 흥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건강 대선사 문하 입산
- 1978 한국 승려 청목회 창립전 (초대회장), 한국 명인 서화전 출판(출판회관 화랑)
- 1981 선묵개인전(신체장애자 기금을 위한 저선전, 세종문화회관), 국제포교사로 도미(로스앤젤레스, 달마사 주지)
- 1985 초대선묵개인전(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문화센터) 및 퍼포먼스, 뉴욕 라미마극장 및 퍼포먼스 노스캐롤라이나 예술대학 초청 전시회 및 공연
- 1987 초대선묵개인전 및 퍼포먼스(불란서 파리, 르몽문화센터)
- 1988 선묵도예개인전(룸비니성지 복원 불사, 롯데쇼핑미술관)
- 1989 영주귀국기념 선묵개인전(불교방송국 건립기금을 위한 전시, 부산 코모도호텔 전시장)
- 1990 하와이 대원사 창립 10주년 초대전 (하와이 힐튼 호텔), 일본 동경 평간사(가와사기 다이찌)초대전
- 1991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문화센터 초대 전시회 및 퍼먼스
- 1994 선묵개인전 (자비의 집 건립기금 자선전, 세종문화회관 전시장)
- 1997 선묵개인전 (뫼주리는 이북동포 어린이 돕기, 세종문화회관)
- 2001 노숙자 돕기 선묵개인전(공평아트)
- 2004 선문화 예술제(대구대덕문화전당)
- 2006 선묵 30년전(국제선센터 건립기금 모금)
- 2007 태극왕 탄신80년 초대 퍼포먼스
- 2008 대만 불광사 초대전

現 속리산 달마선원 · 선문화예술원 원장

(경상북도 상주시 화남면 동관2리 절골 294번지)

Tel : 054-535-0378 / Fax : 054-535-4750